


[제2019-19호]

| | | | | | |
|---|------------------------------|----------------|------------|---|--|
|  한국문화원 Korean Cultural Center Los Angeles | | 보 도 자 료 | |  | |
| 보도일시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총 5쪽 | |
| 배포일시 | 2019. 4.25(목) | 담당부서 | LA한국문화원 전시 | | |
| 연락처 | 323-936-3014/tammy@kccla.org | 담당자 | Tammy Cho | | |

LA 한국문화원 특별기획: <Chasing Passion> 전시 개최

“열정의 작가들, 한자리에서 만나다”



- ▶ 전시명 : Chasing Passion (열정을 찾아서)
- ▶ 전시기간 : 2019.5.2(목) - 5.17(금)
- ▶ 개막식 : 2019.5.2(목) 19:00
- ▶ 장 소 : LA한국문화원 아트갤러리/ 5505 Wilshire Blvd. L.A., CA 90036
- ▶ 초대작가 : 박혜숙, 데이비드 장
- ▶ 개막식 온라인 예약 : www.kccla.org
- ▶ 불임 : 전시 포스터 및 사진자료 등 각 1부
- ▶ 전시문의 : LA한국문화원 323-936-3014 전시담당 Tammy Cho
- ▶ 전시장 개장 : 월-금 10:00 - 17:00 / 토 10:00 -13:00

LA한국문화원(원장 박위진)은 특별기획 전시로, <Chasing Passion> (열정을 찾아서) 전시회를 5.2(목) 부터 5.17(금)까지 LA한국문화원 2층 아트갤러리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는 미 주류 미술계에서 인정받고 주목 받고 있는 화가 박혜숙과 설치 미술가 데이비드 장의 초대전으로 그들의 다양한 작품들을 소개한다.

박혜숙 작가와 데이비드 장 작가는 평자들로부터 ‘열정의 작가’로 불리운다. 한 작가는 삶의 스토리를 과감한 붓놀림으로 캔버스에 녹여 창작작업 자체가 열정적일 뿐 아니라 작품 속에서 우러나오는 인생 이야기를 끝없이 적어내고 있다. 다른 한 작가의 작업은 생존, 혹은 삶에 전술이라고 한다. 그는 무가치하게 된 버려진 물건들을 가지고, 다시 재활용하여 작품으로 재형식화 시켜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작업을 통해 끊임없이 열정의 작품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 박혜숙 (Heysook Park)

박혜숙 작가는 서울미대 재학 중 도미하여 UCLA 회화과를 졸업하고,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뉴욕 등 미국은 물론, 프랑스, 중국, 태일랜드, 한국 등지에서 30년이상 활동하고 있다. 박혜숙 작가는 재미한인작가 중 누구나 인정하는 뛰어난 작가이다. 상징주의, 표현주의, 추상주의 등 그녀의 그림 속에는 다양한 이야기가 적혀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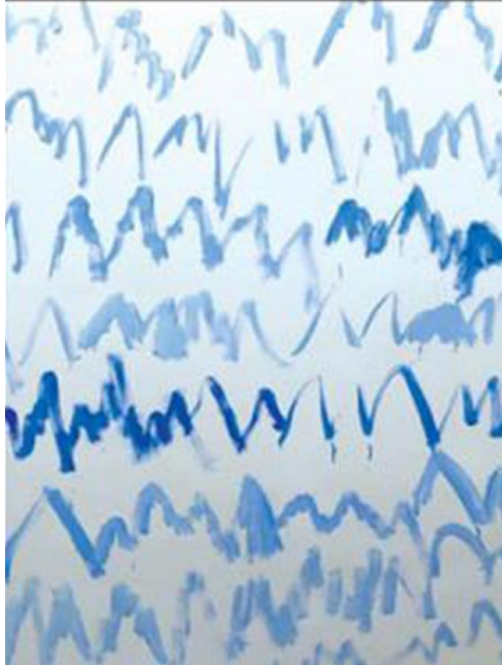


Bowl, 84x72 inches, Acrylic & Oil on Canvas



Skirt, 72x72 inches, Oil on Canvas

커다란 캔버스에 큰 그림을 주로 그리는 그녀는 강렬한 색상과, 단순하게 그려진 선으로 많은 이야기를 적어내고 있다. 일찍부터 미 주류에서 인정하여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던 와중에 박작가의 스튜디오가 불이나 수백점에 이르는 그림과 드로잉들이 불에타 버렸다. 하지만 박혜숙은 타버린 스튜디오를 바라보며, '안타까운 일이지만, 새로운 작품을 시작할 때가 왔구나' 하고는 새로운 작품 구상에 들어갔다.



East Wind, 48x60 inches, Oil on Canvas



Summer Garden, 48x60 inches, Oil on Canvas

아크릴과 잉크에 모델링 페이스트를 사용한 후 굵어내 깊이를 주는 방식을 사용한 작품 속에서 우리는 동양과 서양의 조화로운 맛을 찾아 볼 수 있다.



Chrysanthemum, 60x48 inches, Acrylic & Oil on Canvas

"나는 평평한 캔버스 표면 위에 공간의 깊이를 표현하고자 했고, 그 공간을 표현함으로써 개인적 우주론을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나의 작품들은 정치적 사건이나, 회화의 역사,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에서 파생 되어 표현되어 진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 데이비드 장 (David B. Jang)

서울에서 태어나 미네소타주 세인트폴 칼리지 오브 비주얼 아트를 졸업한 1.5세 한인 데이비드 장은

LA국제공항과 LA현대미술관(MOCA), 라구나 아트 뮤지엄, 나가사키 미술관, 파주 교하아트센터 등 다수의 뮤지엄과 갤러리에서 왕성하게 전시활동을 하고 있는 설치미술가이다.

그의 작품은 생존을 바탕으로,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삶의 기술이다. 생존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변화와 관리유지가 요구되고, 그 순서는 에너지의 활용을 의미한다. 하지만 에너지와 물질은 파괴되어 없어지지 않고 다만 변형될 뿐이기에, 거의 작품은 끊임없는 움직임과 변화와 전환을 통해 현실에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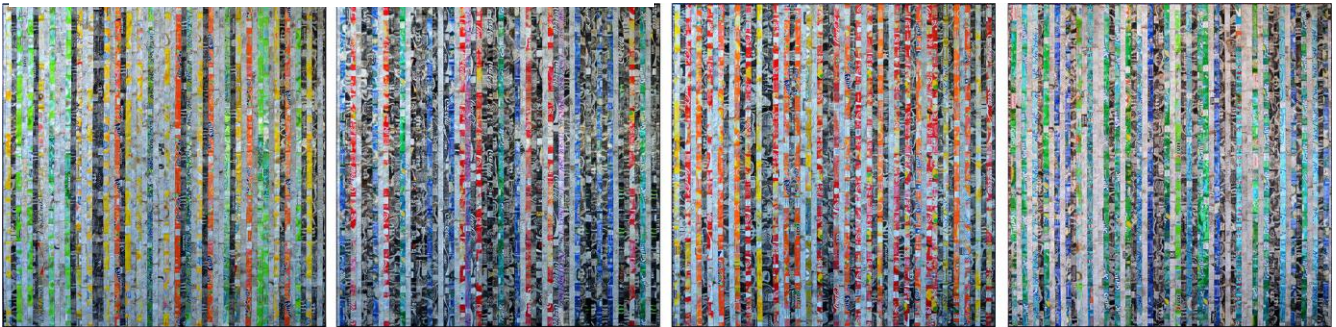
그의 과제는 최종 형태로 실현되지 않지만 우리의 몸과 같이, 선과 질량(다양한 상황에서)의 지속적인 생산을 하는 것이다. 에너지의 지속적인 전환을 요구하며 이러한 규칙적인 시스템은 거의 대부분이 무질서 상태에서 발견되거나 그 방향으로 전진한다. 그 의미는 엔트로피(Entropy) 법칙을 위반 함으로써 질서를 창조 할 수 있다.



Deflecting Production (extended)
132" x 312" x 168" (dimensions variable)
electric motor, steel, motion sensor and custom
circuit board
2016 - 2019



Paint Circuit
120"x312" (dimensions variable)
electronic circuit and paint on canvas
2019



Harness 1, 2, 3, & 4
60"x60" (each Torched Aluminum Cans and Oil on Wood)
2019

그는 지속적인 생산과 형식 생산, 즉 질서, 의미있는 창조의 지속적인 상태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 이 말은 즉슨, 세대는 우리가 만든 모션인 기술적 생산과 형식을 생산하려는 인간의 강박감과 연관되어 있다. 그는 계속해서 Autocatakinetics 알려진 셀프 조직화 시스템을 찾고 있다. 그의 작업의 소재는

운영과 활동의 기능, Morphemes, 그것은 사회 언어의 문법과 같은 기능이다. 그는 산업사회가 살아있는 유기체로 보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존재는 유기적인 치료형태의 생명체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느 한 인터뷰에서 데이비드 장, 설치 미술가는 "제가 발견하는 일들이 미래 세대에 큰 아이디어로 전달되어 줄 수 있고, 또한, 사람들의 정신적인 영감에 나뉘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언급하였다.

<Chasing Passion> (열정을 찾아서) 전시는 2019. 5.2(목) 19:00 개막식을 시작으로, LA한국문화원 아트 갤러리에서 5.17(금)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LA한국문화원 전시 담당 태미 조 323-936-3014로 연락하면 된다. /끝/